

# 서식지 복원 8년... 신안군의 바다새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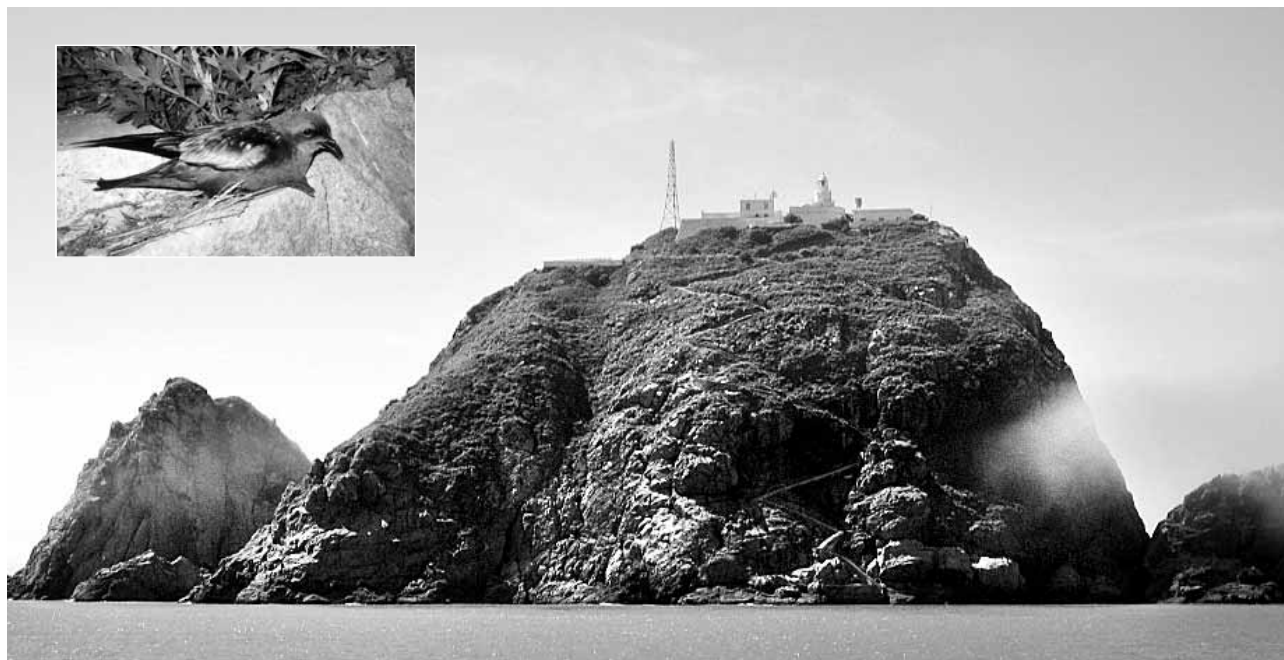
### 바다제비 국내최대 번식지 2009년부터 위해식물 퇴출 식생 제거·복원 용역 발주

신안군의 바다새 사랑이 꾸준하다. 국내 최대 바다새 번식지로 알려진 칠발도와 구굴도에서 지속적으로 바다새 서식지 복원과 철새를 위협하는 외부 침입 식물 퇴출 작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서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칠발도와 구굴도를 대상으로 '바다새번식지 위해식생 제거 및 복원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사업을 발주했다.

군은 6개월간 칠발도와 구굴도에서 철새를 위협하는 외부 침입 식물인 쇠무를 제거 작업을 벌이는 한편, 바다제비의 동지리 이용되는 밀사초를 이식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군은 또 바다제비, 습새 등 바다새 번식과 도래 조류 개체, 외래식물에 의한 피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안군의 바다새 사랑은 한결같다. 지난 2008년 철새연구센터와 바다새 모니터링을 벌였고 바다새 서식지 복원과 위해 식물 제거 작업은 2009년부터 실시됐다. 신안군은 2009년 '국제철새심포지엄'을 열고 도서 지역 조류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동식물 피해 분석과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바다새번식지 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2011년)을 진행하는 한편, 바다새 위해식생 제거 및 복원사업(2012~2016년)은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 칠발도(천연기념물 제 332호)와 구굴도(천연기념물 제 341호)는 국내 최대 바다새 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칠발도의 경우 1만여쌍의 바다제비가 번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구굴도에는 바다제비가 10만쌍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쇠오리는 칠발도가 국내 최대 서식지다.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경로의 네트워크 서식지로도 인



국내 최대 바다새 번식지 칠발도 전경과 칠발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

증된 상태다.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경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호주의 남반구를 잇는 철새 이동경로로, 국제적으로 98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발도(천연기념물 제 332호)와 구굴도(천연기념물 제 341호)는 국내 최대 바다새 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칠발도의 경우 1만여쌍의 바다제비가 번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구굴도에는 바다제비가 10만쌍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쇠오리는 칠발도가 국내 최대 서식지다.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경로의 네트워크 서식지로도 인

증된 상태다.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경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호주의 남반구를 잇는 철새 이동경로로, 국제적으로 98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발도(천연기념물 제 332호)와 구굴도(천연기념물 제 341호)는 국내 최대 바다새 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칠발도의 경우 1만여쌍의 바다제비가 번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구굴도에는 바다제비가 10만쌍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쇠오리는 칠발도가 국내 최대 서식지다.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경로의 네트워크 서식지로도 인

증된 상태다.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경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호주의 남반구를 잇는 철새 이동경로로, 국제적으로 98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발도(천연기념물 제 332호)와 구굴도(천연기념물 제 341호)는 국내 최대 바다새 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칠발도의 경우 1만여쌍의 바다제비가 번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구굴도에는 바다제비가 10만쌍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쇠오리는 칠발도가 국내 최대 서식지다.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경로의 네트워크 서식지로도 인

증된 상태다.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경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호주의 남반구를 잇는 철새 이동경로로, 국제적으로 98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발도(천연기념물 제 332호)와 구굴도(천연기념물 제 341호)는 국내 최대 바다새 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칠발도의 경우 1만여쌍의 바다제비가 번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구굴도에는 바다제비가 10만쌍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쇠오리는 칠발도가 국내 최대 서식지다.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경로의 네트워크 서식지로도 인

## 사랑의 목도리... "따뜻한 겨울 나세요"

### 함평 수능 끝낸 학생 50명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에 전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교생들이 목도리를 짜 지역 노인들에게 전달,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함평군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함평 학다리교와 함평고 학생 50명은 최근 자신들이 정성껏 뜨개질한 목도리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자원봉

사 프로그램에 참여, 지역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목도리를 만들어 전달했다.

지역 어르신들도 뜻밖의 선물을 받고 마음을 표시했다. 함평 학다리교 3학년생인 김지수 학생은 "큰 것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목도리를 받은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 해주셔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자원봉사센터는 '올리사랑', '다문화가정꿈나무 돌보기' 등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역사·문화·생태환경 집대성 신안군지 발간

신안의 역사와 문화, 교육, 생태환경 등을 총망라한 신안군지(사진)가 발간됐다.

군지는 지난 2000년 발간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발간된 것으로, 4권 분량으로 변화된 신안군의 모습과 발전상을 담았다.

군은 2014년 마무리한 14개 읍·면별 문화자원 지표조사를 토대로 발간 작업에 들어갔다.

읍·면 향토사가 20여명이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43명의 집필진이 4년간의 걸쳐 만들었다.

분야별로 '역사와 문화유산', '삶의 환경과 사회상', '섬사람들의 생활문화', '신안의 섬이야기' 등으로 나뉘어 제작됐다. 특



히 신안의 섬 이야기의 경우 읍·면의 본섬과 부속 섬들 중 유인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지역 섬들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국립 나주 숲체원' 금성산에 조성

나주 금성산에 숲·나무 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립 나주 숲체원(조감도)'이 조성된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녹색자금 200억원을 투입, 경원동 금성산 일대 58ha 규모로 국립 나주 숲체원을 조성한다.

사업은 지난 2015년 6월 대상지 확정 이후에도 토지 매입 절차 지연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다 최근 관련 토지 매입을 마무리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숲체원은 도심에서 쉽게 숲과 나무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 산림복지 제공 등을 위한 시설로 꾸며진다. 지하 1층·지상 2층(건축면적 3218㎡) 규모로 지어지며 휴양시설로 트리하우스,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하늘 숲길, 체험 교육장, 다오름 암벽 등도



조성된다. 숲체원은 주중에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복지 차원에서 지역민들과 여행객들의 숙박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또 숲체원을 숲·나무 등과 관련한 각종 회의, 세미나, 전시회, 관련 시민단체 교류 장소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 기부천사가 전한 함평 검정 비닐봉투

### 동전·지폐 68만여원 담겨 복지실에 익명 전달 훈훈

익명의 기부자가 함평을 찾아 성금을 전달, 겨울철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한 주민이 군청 주민복지실장실에 검정 비닐봉투(사진)를 놓고 갔다.

주민은 "누군가 '군청에 성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해 심부름을 했을 뿐 기부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이 놓고 간 비닐봉투에는 동전과 꼬깃꼬깃한 1000원, 5000원, 1만원짜리 화폐가 가득 들어있었다. 군청 직원들이 계산해보니 68만1660원이었다. 이 주민은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기부자의 뜻도 전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1년간 저금통에 모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함평군 내년부터 '채무 제로'

### 연말까지 빚 110억 상환 평균 설명이다.

함평군이 '채무 제로(zero)'를 선언했다.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빚 전액을 갚아 내년부터 빚 없는 자치단체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지방채 110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오는 22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지방채는 민선 5기 출범 과정에서 인수한 지방채 158억원 중 상환(128억원)하고 남은 잔액 30억원과 동함평산단 조성을 위해 발행한 260억원 중 갚고 남은 80억원을 합한 110억원이다.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빚 제로' 경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게 함

평군 설명이다. 군은 애초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계획을 세웠지만 효율적 재정 운영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등의 성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평군은 '2년 연속 알뜰살림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또 조기 상환에 따라 아끼게 된 이자비용 11억원을 재정형편상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못했던 분야에 사용키로 했다. 산업인프라 확충,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등 도시 기반 구축 및 주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우선 순위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지방채 조기 상환 이후에도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경기도 양평, 여수 거문도, 전원주택토지 투자 하실분!

## 문의.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010-3605-5000